

중심

작성일 : 2010. 07.09.

작성자 : 장정희

(천국성령 집회 때 섭리사를 증거 하는 말씀을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섭리사는 하늘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이다.  
재림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준비케 하는  
첩경의 역사요 중심의 역사이다.

중심의 역사

선생이 있기에 섭리사는  
재림 준비의 중심의 역사인 것이다.  
중심자인 선생이 있기에 섭리사가 중심 역사인 것이다.

사람의 몸도 중심인 허리가 세워져야  
상체와 하체가 꺾어지지  
섭리사도 중심인 선생이 있었기에  
전반기 섭리사와 후반기 섭리사가 펼쳐질 수 있었다.

섭리사 전반기도 선생이 중심이었고  
섭리사 후반기도 선생이 중심이다.

너희는 섭리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지  
반드시 깨달아야한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섭리사는 선생의 펜 끝에서 쏟아지는 나 예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중심 되어 펼쳐나간다.

이 펜 끝으로 펼쳐지는 중심 역사는  
나와 선생이 대신 세운 자 부흥강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그리고 이 중심은 각 교회 목회자 지도자 부서장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흘러감을 깨달아라.

섭리사 모두가 중심자 들이다.

각 가정의 중심자요 각 지역의 중심자요

각 민족의 중심자요 세계의 중심자 들이니

섭리사 모두는 섭리사의 중심 중의 중심인 나 예수

를  
온전히 중심하여 중심의 정신을 받고 무장하여  
재림의 중심자 신부되어 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

진정 재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  
가장 중심의 역사이니

이 귀하고 귀한 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귀한 성령 받고 영, 혼, 육, 마음의 변화, 부

활을 일으켜라.  
사랑으로 나와 일체 되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또한 재림 주관권 역사에 일어나는  
중심역사 중 중심이니

너희는 이 귀한 성령을 받고 신부로 거듭나라.

너희 영의 생명이자 중심인 성령을 받아라.

너희 영 혼 육 마음을 살리고 천국 가게 하는 성령  
을 받아 온전히 부활하고 변화되어라.

변화된다는 것은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다.

진정 신부로 변화되는 자는

땅의 역사 중 중심역사인 신부의 역사를 이루는 자  
다.

지금 신부의 역사 중심에 선생이 온전히 서 있으니  
너희는 선생을 중심으로 모이고 모여라.

신부들이여, 섭리사는 중심으로 하나 될 지어다.

그리하여 하나 된 세계의 섭리사 신부들이여

신랑인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진정 뜨거운 사랑의 성령을 퍼부어

재림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어서 한 목소리로 나를 사랑한다고 외쳐라.

삶으로 사랑으로 외쳐라.

재림 역사의 중심이자 핵인 사랑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재림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이다.

그 사랑의 중심은 바로 나 신랑 예수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 행실의 중심 정신의 중심 영의 중

심  
그 모든 것의 중심인 사랑은 바로 나 예수니라.

중심자 예수로부터

목숨 걸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 중심을 벗어난 역사는 무엇입니까?)

원죄를 지은 아담 하와로부터  
현재 섭리사를 공격하는 모든 역사가  
중심을 벗어난 역사이니  
중심을 벗어났다함은 사탄의 주관권이 되었다 함이  
다.

중심을 벗어난 역사 모두 사탄 주관권의 역사이니  
섭리사 신부들아, 너희는 결코 중심의 역사인  
이 섭리사를 벗어나지 말라.  
사랑의 역사인 섭리사를 벗어나지 말라.  
섭리사를 벗어나면 미움과 죄와 다툼만이 있을 것이  
다.

중심을 벗어난다는 것은  
나 예수의 사랑의 주관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진실로 나 예수의 사랑의 보호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되니  
이는 바로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 받고 근신하여  
중심에 온전히 서 있는 섭리사 신부가 되어라.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면 온전치 못한 역사가 되니  
온전치 못한 곳엔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중심 되는 섭리사 신부가 되길  
나 예수가 간절히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중심은 무엇이냐?)

(삼위와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실입니다.  
사랑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것에서 하나 더 중심 돼야할 것은 간절함  
이다.  
사랑하고자 실천하고자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만들 것이다.  
나의 간절함이 내 사랑을 더욱 깊이 만드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선생의 간절함이